

부 I 록

2011마약류범죄백서

국내 및 각국의 마약류 단속체계

PROSECUTION  
SERVICE

2011 마약류 범죄백서

1. 국내 마약류 단속체계

◀ 국내 마약류 단속체계도 ▶



## 2. 중국 마약류 단속체계

### 가. 국가금독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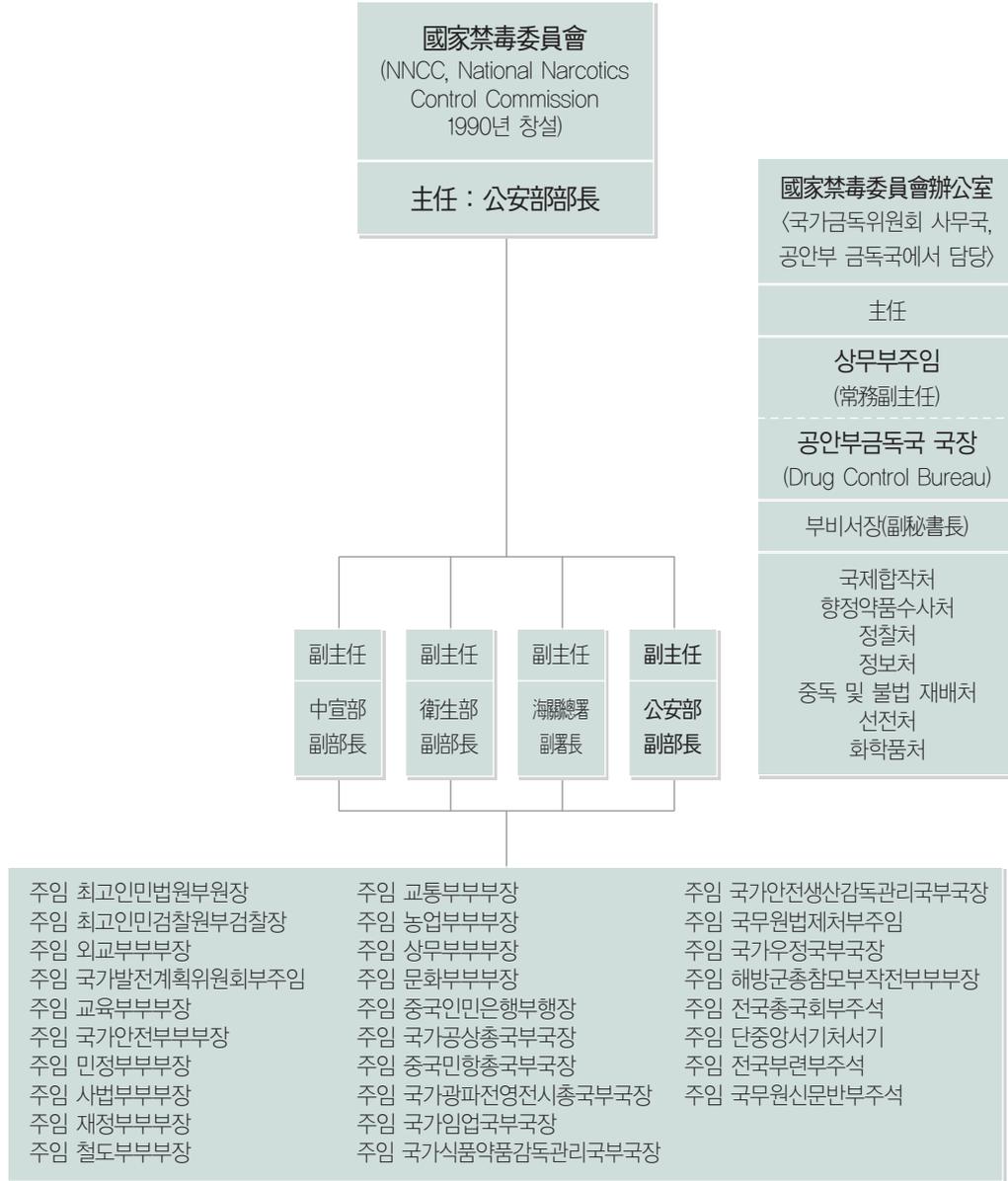
(國家禁毒委員會 : National Narcotics Control Commission)

- 구 성 (총 26인)
  - 위원장은公安부장이 겸임
  - 부위원장은 4명으로 중앙선전부 부부장, 위생부 부부장, 해관총서 부세관장, 公安부 부부장으로서 구성
  - 위원은 사법부, 행정부 등 마약류 범죄와 관련된 국가기관의 장관 및 차관급 21명(최고인민법원 부원장, 최고인민검찰원 부검사장, 외교부 부부장, 무역위원회 부주임, 교육부 부부장, 국가안전부 부부장, 재정부 부부장, 문화부 부부장, 국가약품감독관리국 부국장, 해방군 작전부장, 전국부녀연맹 부주석 등)
- 임 무
  - 마약류 퇴치전략 등 국가적, 전국적 종합대책 수립 및 정책결정
  - 마약류관련 각 부처 업무 총괄·조정 및 감독

### 나. 국가금독위원회 사무국

- 임 무
  - 1990년 창설된 국가금독위원회의 구체적 임무수행을 위해 1998년 신설
  - 국가금독위원회 사무국장은 公安부 부부장(비서장)이 담당하고 있으나 상무부비서장인 公安부 금독국장이 실질적인 전권을 행사하고 있음
  - 금독국 산하에 국제합작처, 2002. 5. 신설된 향정약품수사처, 정찰처, 정보처, 중독 및 불법제 배처, 선전처, 화학품처 등 7개처가 있음

《 중국 마약류 단속체계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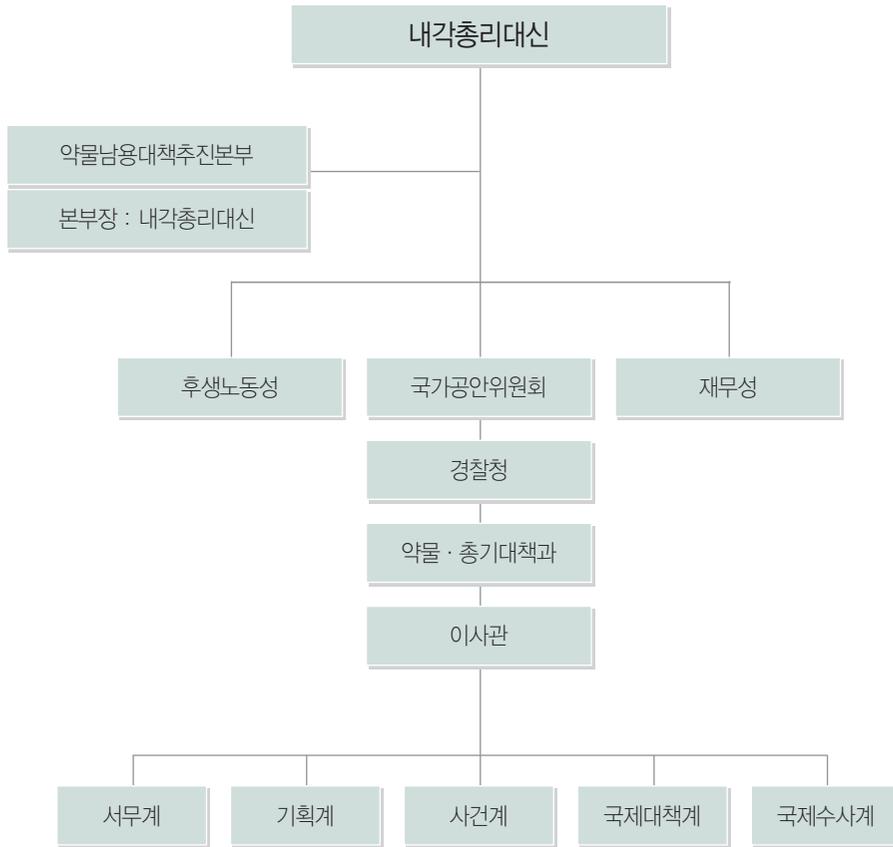
### 3. 일본 마약류 단속체계

#### ▶ 약물남용대책추진본부

- 구 성 (총 15인)
  - 본부장은 내각총리대신
  - 부분부장은 내각관방장관, 국가공안위원회위원장, 총무부장관, 법무대신, 대장대신, 문부대신, 후생대신, 운수대신
  - 본부원은 외무대신, 통상산업대신, 우정대신, 노동대신, 건설대신, 자치대신
- 임 무
  - 엄정한 처벌 및 효과적 단속을 위한 마약류 관련법규 강화
  - 대국민 홍보·계몽활동 강화
  - 약물남용자에 대한 치료 등 처우개선 사항
  - 국제협력 추진
  - 관계법령 개정 및 각종 제도운영을 견실화하고 마약 관련 연구, 개발활동 추진

2011 마약류 범죄백서

《 일본 마약류 단속체계도 》



## 4. 미국 마약류 단속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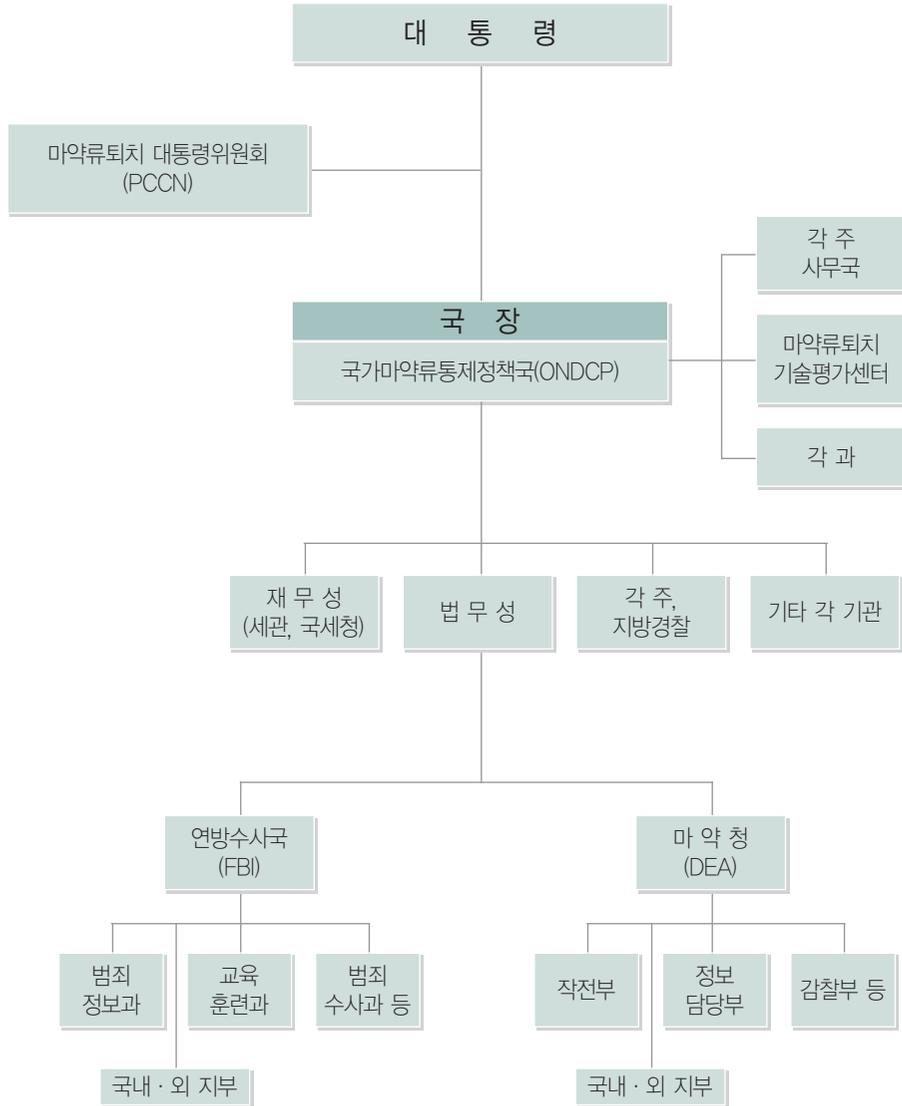
### ▶ 마약류퇴치 대통령 위원회

(President's Council on Counter-Narcotics)

- 구 성 (총 18인)
  - 의장은 대통령
  - 집행위원장은 국가마약류통제정책국(Office of National Drug Control Policy) 국장
  - 위원은 부통령, 법무부장관, 중앙정보국장, 재무장관, 국방장관, 교통장관, 국무장관, 보건장관, 교육장관, UN대표부 관리 및 예산청장, 국가안보국대통령보좌관, 대통령수석보좌관, 대통령자문위원, 합참의장, 부통령국가안보자문위원
- 임 무
  - 국가마약류퇴치전략(National Drug Control Strategy) 이행관련 및 마약류관련 각 부처 업무 총괄·조정 및 감독
  - 국가마약류퇴치전략 방향 및 종합대책에 대한 대통령 자문 및 보좌
  - 마약정책수립에 관한 주요 회의체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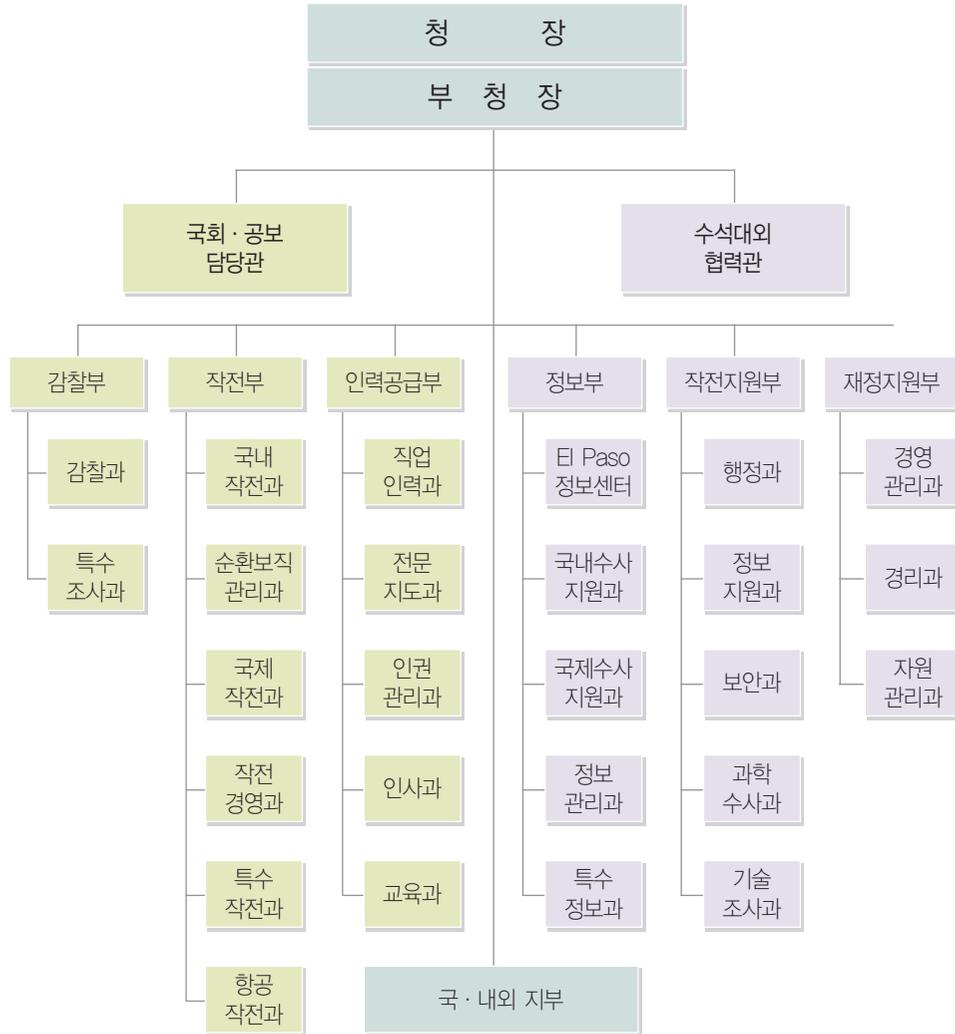
2011 마약류 범죄백서

《 미국 마약류 단속체계도 》



국내 및 각국의 마약류 단속체계

◀ 미국 마약청(DEA) 조직도 ▶



부록 국내 및 각국의 마약류 단속체계

## 2011 마약류 범죄백서

## 5. 태국 마약류 단속체계

## 가. 마약단속위원회(NCB : Narcotics Control Boar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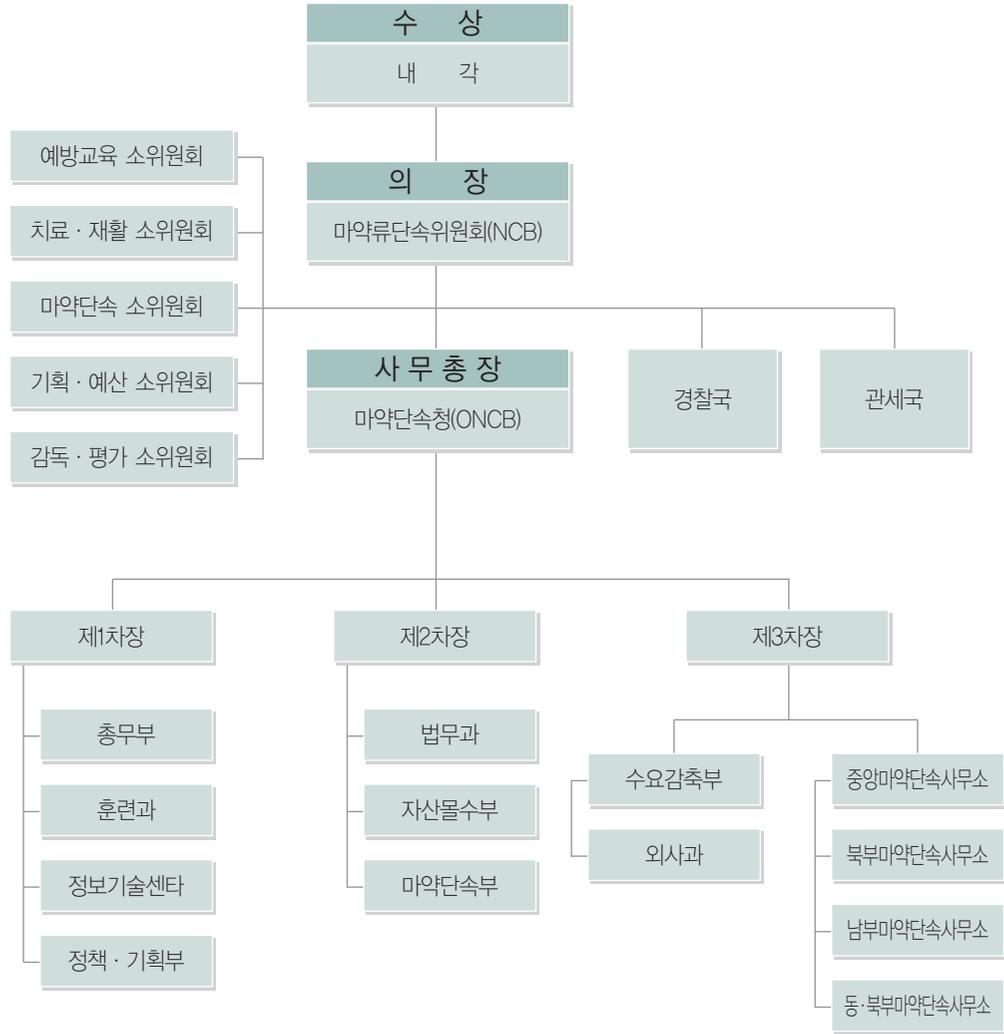
- 구 성 (총 14인)
  - 위원장은 수상
  - 위원은 ONCB 사무총장, 전직장관 6명 (내무부, 교육부, 보건부, 검찰부, 경찰부, 관세부) 및 내각에서 임명한 6명
  - 마약단속청(ONCB)의 사무총장이 집행기능(간사) 담당
- 임 무
  - 마약류관련 각 부처 업무 총괄·조정 및 감독
  - 마약류 퇴치전략 등 종합대책 수립
  - 내각에 권고할 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한 토의

## 나. 마약류 단속 5개 소위원회(sub-committe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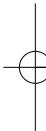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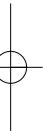
- 마약단속위원회(NCB)의 구체적 임무수행을 위해 설립
  - 기획·예산 소위원회
  - 감독·평가 소위원회
  - 마약류 예방 소위원회
  - 치료·재활 소위원회
  - 마약류 단속 소위원회

국내 및 각국의 마약류 단속체계

태국 마약류 단속체계도



부록 국내 및 각국의 마약류 단속체계



# 부 II 록

2011 마약류 범죄백서

## 주요국 마약류 범죄 동향

PROSECUTION  
SERVICE

## 제1절 중국

### 1. 마약류 현황

#### 가. 암페타민류 각성제(ATS) 시장규모의 지속적인 확장

- 2010년 중국의 마약남용자는 약 150만 명 수준이고, 그 중 214,000명은 초범(중국 금독위원회 2011년 자료 참고)이며, 또한 전체 남용자의 28%인 432,000명은 ATS 등 합성마약 남용자임
- 헤로인은 지난 10여 년에 걸쳐 꾸준히 증가추세로 중독자 수는 2009년 978,226명에서 9% 증가하여 2010년 백만 명 수준이며, 아편은 최근 5년 동안 안정세임

#### 나. 메스암페타민 밀조 증가

- 주로 미얀마에서 유입되어 중국 내 대량 밀매되고, 2010년 정제형 또는 결정형 메스암페타민이 역대 최고 압수량을 기록함
- 미얀마 접경지역인 Yunnan Province(云南省)에서 정제형 메스암페타민의 압수량이 증가하고 있는데 2009년 4,050만정, 2010년 5,800만정이 각각 압수됨

#### 다. 원료물질 및 제재 남용 증가

- 중국은 서남 및 동남아産 ATS 및 헤로인의 경유지로 국제밀매조직에 의해 이용되고 있고, 대량의 ATS(슈도에페드린, 에페드린) 및 헤로인(무수초산)의 원료물질이 전용되고 있음
- 중국 당국은 2009년 이후 예방활동, 치료재활 및 단속 강화에 주력하고 있음

## 라. 케타민 남용 급증

- 중국 본토 및 홍콩의 청소년(20세 미만)을 중심으로 케타민 남용이 급증하여 2010년 남용인구는 6,885명으로 2009년 대비 28% 증가함

## 2. 단속 현황

- 2010년 마약류사범 단속인원은 101,748명(2009년 대비 11% 증가)으로 이 중 39,231명(39%)이 메스암페타민 관련, 816명이 엑스터시 관련으로 각각 검거(2009년 엑스터시 단속인원은 1,287명임)됨
- 외국인 마약사범 수는 2006년 1,060명, 2007년 1,299명, 2008년 1,206명, 2009년 1,559명으로 최근 증가추세임
- 2010년 메스암페타민(결정형 및 정제형 포함) 압수량은 9.9톤으로 특히 정제형 메스암페타민의 경우, 5,840만 정으로 2009년 4,050만 정에 비해 44% 이상 급증하였는데, 이 중 약 4.6톤 가량이 미얀마産 메스암페타민으로 주로 Yunnan Province(운난, 云南省)을 통해 중국 내로 유입<sup>1)</sup>되었음
- 2010년 ATS 밀조시설에 대한 적발 건수는 378건(2009년 391건, 2008년 244건)으로 2006년 이전의 밀조시설은 대부분 Guangdong(廣東), Fujian(푸젠, 福建) 등 남동지역에 집중되었으나 최근 Sichuan(쓰촨, 四川), Henan(허난, 河南), Hunan(후난, 湖南), Hubei(후베이, 湖北) 등 지역으로 이동 추세임
- 세계 최대 케타민 단속량(압수량)을 기록하고 있는 중국은 2010년 4.9톤으로 전년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나 전반적으로 증가추세임
- 2010년 코카인 압수량은 2009년 대비 10배 이상 급증한 441kg이고, 대마 압수량은 3.2톤에 달함

1) 중국 금독위원회 2011년 자료 참고

[부록 표-1] 중국의 마약류 압수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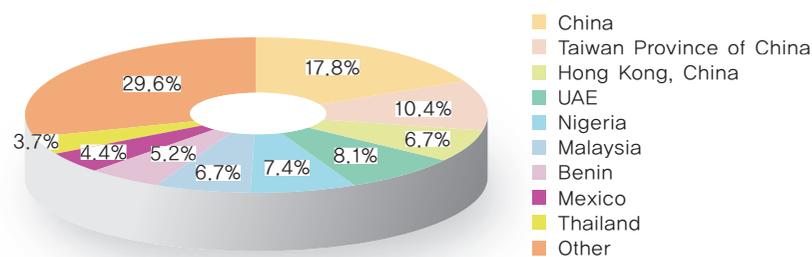
마약류 \ 년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결정형)메스암페타민(단위:톤)	6.7	6	5.8	5.5	2.4	4.1
(정제형)메스암페타민(단위:정)	2,342,397	4,021,492	7,620,322	6,255,658	40,640,038	58,443,666
엑스터시(단위:정)	-	454,145	2,219,353	1,077,552	1,062,173	1,272,904
케타민(단위:톤)	2.6	1.7	6.1	5.2	5.3	4.9
헤로인(단위:톤)	8.9	5.8	4.6	4.3	5.8	5.3
아편(단위:톤)	2.3	1.7	1.2	1.4	1.3	1.0

※ 출처 : Global SMART Programme 2011

## 제2절 일본

### 1. 마약류 현황

- 결정형 메스암페타민(일본에서는 정제형 메스암페타민은 보고된 바 없음)이 1950년대에 유행하고 난 이후 1980년대와 1990년대를 거치는 동안 제1마약이 되었는데, 이에 비해 코카인, 헤로인, 아편 관련 마약사범의 전체 비율은 1% 미만에 불과함
- 최근 5년간(2011년 기준) 전체 마약사범의 50% 이상이 일본조직범죄단체인 ‘야쿠자(Boryokudan, 폭력단)’ 조직원으로 파악되고 있고, 2010년도에는 전체 마약사범의 53% 가량인 6,317명을 차지하였음
- Mephedrone, Salvinorin A 등 이른바 ‘Designer Drugs<sup>2)</sup>’ 로 불리는 합성마약이 등장함
- 메스암페타민 원산지는 종전 중국에서 최근에는 대만, 홍콩, UAE, 나이지리아, 말레이시아, 베닌(Benin), 멕시코, 태국 등을 포함하는 다변화 추세인데 일본이 국제마약조직의 최종 소비지로 각광받고 있는 이유는 1) 비교적 큰 마약시장규모 2) 높은 밀매가격 등으로 분석되고 있음



[부록 그림-1] 일본의 마약사범 국적별 현황

※ 출처 : 2011 Global SMART Assessment

2) 디자이너 약물이란 불법 약물의 화학구조를 다소 변형시켜 제조한 합성 도취마약의 총칭으로 흔히 암페타민을 기초로 조제되는데 그 효과가 장시간 지속되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많은 손상을 주며 사용자의 성격을 변화시킴

- 외국인 마약사범의 경우 2006년 이후 이란인이 상당수를 차지(2009년 85명, 2010년 50명)하고 있음

## 2. 단속 현황

- 2010년 마약사범 수는 14,536명으로 약 83% 가량이 결정형 메스암페타민 관련 사범(11,999명)이었고, 대마사범 수는 전체 마약사범의 15%인 2,216명으로 2009년 대비 24% 감소하였음

[부록 표-2] 일본의 마약사범 단속 현황

(단위: 명)

마약류	년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메스암페타민		13,346	11,606	12,009	11,025	11,655	11,999
대 마 초		1,941	2,288	2,271	2,758	2,920	2,216
코 카 인		36	72	99	98	116	105
헤 로 인		21	22	13	13	15	17

※ 출처 : Global SMART Programme 2011

[부록 표-3] 일본의 마약류별 압수량

(단위: Kg)

마약류	년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결정형)메스암페타민		118.9	144.0	359.0	401.3	356.3	302.3
대 마 초		643.1	232.8	503.6	375.1	195.1	144.7
대 마 수 지		230.5	98.7	56.9	33.1	17.2	8.8
코 카 인		2.9	9.9	19.2	5.5	11.3	6.9
헤 로 인		0.108	2.3	2.0	1.0	1.2	0.2

※ 출처 : Global SMART Programme 2011

## 제3절 미국

### 1. 마약류 현황

- 미국내 메스암페타민 밀제조시설 적발은 2007년 6,099건에서 2009년 9,427건으로 증가하고 대부분은 소규모시설.
- 마약 압수량은 2008년 7.4톤에서 2009년 7.5톤으로 증가추세이며 주로 처방감기약 성분 중 함유된 슈도에페드린을 추출하여 제조하는 방식임. 멕시코 마약조직이 멕시코에서 미국내로 유입되는 밀매는 물론 캘리포니아주를 중심으로 미국내 밀제조에도 개입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멕시코의 메스암페타민 압수량변동(2008년 340kg에서 2009년 8톤으로 증가)과 상관관계 추정
- 엑스터시의 경우 2009년 미국내 압수량은 3.4톤으로 2008년 대비 15% 증가하였고 대부분 캐나다에서 밀제조되어 미국내로 유입되고 아시아계 조직범죄단체가 유통(밀매)에 개입하는 것으로 추정

### 2. 단속 현황

- 미국의 마약단속 관련 연방기관에는 마약청(DEA), 국토안보부(DHS), 연방수사국(FBI) 등이 있으며, 특히 마약청은 (2012년 현재) 국내에 21개 지역본부(Division)산하 226개 사무소(Field Office)는 물론 해외 65개국 85개 사무소를 운영하며 '국제마약단속회의(IDEC)' 개최를 통해 마약류 범죄 정보를 공유하여 국제적 마약범죄 척결에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음

## 2011 마약류 범죄백서

[부록 표-4] 미국의 마약류 압수량

\*( )는 DEA 실적

구분 \ 년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코카인 (단위:Kg)	174,679 (118,258)	152,726 (71,211)	142,174 (98,299)	97,764 (50,474)	- (50,825)	- (29,179)
헤로인(단위:Kg)	1,692 (642)	1,779 (818)	2,514 (625)	1,776 (606)	-	-
메스암페타민(단위:Kg)	4,772	4,716	2,826	4,209	-	-
엑스터시(단위:정)	2,839,840	2,020,446	1,974,372	2,545,300	4,398,972	3,014,306
대마초(단위:Kg)	1,117,189 (283,382)	1,141,735 (328,277)	1,456,855 (360,728)	1,587,322 (662,143)	- (671,557)	- (722,476)

※ Global SMART Programme 2011, National Drug Control Strategy 2012

[부록 표-5] 미국의 마약류 단속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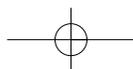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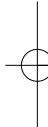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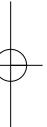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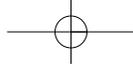
\*( )는 DEA 실적

마약류 \ 년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검거자 수	1,846,351 (30,463)	1,889,810 (30,690)	1,841,182 (29,933)	1,702,537 (28,555)	1,663,582 (31,701)	1,638,846 (30,922)
수감자 수	1,527,929	1,569,945	1,598,245	1,609,759	1,614,355	1,605,127

※ 검거자 및 수감자는 연방 및 주(州) 단속기관 통계자료 포함

※ 출처: Global SMART Programme 2011, National Drug Control Strategy 2012





**총괄**

대검찰청 강력부장

주철현

**기획**

대검찰청 마약과장

조재연

**편집**

대검찰청 마약과

정병수	김용권
김태현	김현수
김현송	진호진
남은호	손형수
한태환	박희조

## 2011 마약류 범죄백서

2012년 8월 10일 인쇄

2012년 8월 10일 발행

발행 : 대검찰청 ☎(02)3480-2292~5

인쇄 : 도서출판성민 ☎(02)571-5700

